

2026. 9. 28.

금융 Weekly Insight

유가 및 금리로 대변되는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이 주요 변수로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9월 다섯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79.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1.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금융 업종 주간 수익률은 은행(-0.9%), 증권(+2.6%), 보험(-0.7%) 등 전반적으로 KOSPI 2.7% 상승 대비 조정을 거치는 모습을 시현.
-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국내외 금융주 증시 변동성을 야기. 특히 지난주 초는 유가 급등이, 후반은 장기 금리 상승이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
- 금리 상승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전망하에서 은행과 보험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펀더멘털 흐름이 예상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특히, 10월에 들어서며 3Q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음에 초점 맞출 필요.

금융 Overview

- 은행 - 금리와 유가 불확실성은 부담. 다만, 3Q 실적 시즌에 초점 필요: 은행 업종은 w-w 0.9% 하락하며 KOSPI(w-w +2.7%)를 언더퍼폼. 지난주 초에는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에 따른 우려 요인이 국내 은행주의 조정을 야기한 가운데, 추석 연휴로 국내 증시가 휴장이었던 후반의 화두는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이었음. 결국 유가 상승이 촉발한 물가 상승 부담과 이에 따른 금리 상승이라는 순환이 여전히 대표적인 변수로 작용 중. 은행의 경우, 극단적인 물가 및 금리 상승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적정 수준의 금리 상승과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펀더멘털에 긍정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특히, 10월에 들어서며 3Q 실적 시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은행들의 양호한 이익과 이자이익 성장 속도 상승에 대한 가시성 제고에 초점 필요.
- 증권 - KOSPI와 동행하나 신용규제 등 경계로 초과 상승은 제한: 증권 업종은 w-w 2.6% 상승하며, KOSPI 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시현. 추석 연휴 직전 3거래일 동안 KOSPI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권 업종 또한 높은 시장 베타(연동성)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 다만,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증권사별 신용공여 한도 축소가 예정되어 있고, KRX 애프터마켓 시행 이후에도 거래대금 제한적인 반등세를 보이는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을 제약하는 요소가 언론 보도를 통해 노출되기도 하였음. 다만 지속된 악재 노출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완화된 상황에서 증권 업종의 경우 저가 매수 심리 또한 점차 확대되며, 지수 연동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
- 보험 - 차익 실현 니즈 지속: 보험 업종은 w-w 0.7% 하락, KOSPI 지수 대비 언더퍼폼. 지난주 보험 업종은 보유 계열사 지분주가 상승에 연동된 삼성생명 상승(+3.4%)을 제외하면 모두 부진한 주가 흐름을 시현하였음. 반도체 대형주 중심 지수 상승 국면에서는 방어적 성격 업종의 상대 매력도가 약화된 영향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 한편 금리 상승 기대감에 따라 하반기 들어 초과 상승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실제 금리 인상 이벤트 이후 차익 실현 니즈 또한 집중된 것으로 판단. 추가 리레이팅의 관건은 결국 주주 환원 측면에서 알파 찾기가 될 것이며, 절대적인 주주 환원을 상승 외에도 정교화 된 프레임(배당가능 이익 관리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9/21) 기업들 회사채 대신 은행 대출로 - 18일 기준 금융계열사 제외 주요 10개 그룹의 채권 잔액은 전년 말 131조원에서 17일 119.3조원으로 9% 감소. 삼성만 7501억원 증가, 나머지 9개 그룹은 모두 감소. 특히, SK가 4.5조원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감소세 시현. - 전체 회사채 시장도 같은 방향.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일반 회사채 발행액은 25.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5% 감소, 순상환으로 돌아선 것. - 국고채 금리 상승이 회사채 금리의 동반 상승을 야기하며 기업들이 회사채 대신 은행 대출로 차입 경로를 바꾼 것. 실제로 4대 금융 그룹의 상반기 6개 그룹에 대한 신용 공여는 12.6조원, 12.9% y-y 증가. - 이러한 현상은 은행과 기업의 이해 관계가 맞았기 때문. 기업은 더 나은 조건에 자금 조달을, 은행은 생산적 금융 강화 과정에서 우량 기업 유치 니즈가 높았기 때문.	생산적 금융 강화 과정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금리 환경이 은행에 우호적: 당초 생산적 금융 강화가 발표되었을 당시, 은행들의 잠재적 부실 증가 및 목표 도달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그러나, 시중금리 상승 기조 속에서 우량 대기업들 중심으로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보다 매력적으로 바뀌었고, 이는 은행의 생산적 금융 강화에 보다 우호적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 상반기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은행들의 우량 대기업 중심 대출 성장 전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는 시장금리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여지가 큰 가운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RoRWA 중심 경영 기조 속에서 부수거래 증가가 가능한 우량 대기업과의 관계 강화가 수익성에 더욱 유리하기 때문. 중장기적 관건은 고객의 Lock in: 다만, 중장기적으로 관건은 이러한 대기업 고객의 Lock-in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 대기업 고객의 은행 유입을 촉발시킨 것은 금리인 만큼, 반대로 회사채 조달 금리가 매력적으로 바뀔 경우 이들의 이탈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 이에 금리 이외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benefit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
	(9/21) 초우량 중소기업 유치 위한 은행 금리 경쟁 - 올해 상반기 중 은행들의 초우량 중소기업 대상 대출금리 스프레드가 크게 낮아진 사례가 확인. 은행이 이미 검증된 우량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 대환을 유도하려는 영업이 적지 않았음을 방증. - 특히, 담보 및 보증서 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지며 금리 경쟁이 심화된 모습.	대기업 영업만으로는 한계 - 우량 중소기업으로: 상반기 중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았던 만큼, 은행들은 대기업과 더불어 우량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 다만, 우량 중소기업을 판별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은행들은 타행의 중소기업 대출 대환을 유도하거나, 담보 혹은 보증서 대출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 안정성과 Trade-off된 수익성 - 다만 상반기 NIM은 안정적으로 방어: 다만, 우량 및 담보 중심의 대출 비중 확대는 안정성을 제고하는 대신 은행의 금리 스프레드를 낮추며 NIM에 부담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은행들은 전반적으로 NIM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에 초점 필요.
	(9/21) 은행 총수신 증가세 지속 - 5대 은행의 14일 기준 총수신 잔액은 2275조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 기록. 지난해 말 대비 100조원 넘게 증가하였으며, 9월 들어 요구불예금 또한 5조원 증가하는 등 견조한 증가세 시현 중. - 시장금리 상승과 증시 조정 속에서 대기자금이 은행 수신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 특히, 은행들은 해당 기간 파킹 통장 등 수시 입출식 상품의 금리를 높임으로써 예치 노력을 기울인 것도 주요. 참고로, 인터넷은행들의 경우에도 파킹통장 금리를 올렸으나, 10~20bp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리 수준은 1.8% 내외.	대출을 위한 시중은행 수신 증가 노력에도 초점 필요: 은행들이 금리를 높여가며 수신을 유지한 이유 중 하나는 대출 증가 수요로 판단. 특히, 3Q 들어 환율의 하락이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은행들의 CET-1 비율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었을 여지가 크고, 이에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제고된 만큼 대출을 늘릴 유인이 컸다고 판단. 문제는 같은 기간 법인세 납부 시기가 맞물리며 은행들은 금리를 높여서라도 예금을 유치해야 했던 것으로 추정. 이는 상대적으로 인터넷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 폭이 제한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판단. 연말로 갈수록 둔화 가능성 고려 필요: 다만, 이와 같은 추세는 둔화될 여지가 존재. 이는 연말로 갈수록 은행들이 성장보다 관리 모드로 전환될 여지가 크기 때문. 실제로 은행들은 생산적 금융 실적을 이미 상당 부분 달성하였고, 가계대출 또한 올해 성장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점 고려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9/22) 은행 가계대출 한도 소진 -금융 당국이 실수요자 대출 절벽 해소를 위해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을 늘려줬지만, 한 달 만에 5대 은행이 추가로 확보한 대출 여력을 사실상 모두 소진한 것으로 보도. 정책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액이 수정된 연간 목표치마저 넘어선 만큼, 연말로 갈수록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실제로 17일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정책성 대출 제외 기준)은 652.3조원으로 올해 목표 652.1조원을 0.2조원 초과. 특히, 5곳 중 2곳은 개별 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태로 앞으로 기존 대출 상환이 되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세 곳도 99%가량이 차 있는 상황. - 다만, 은행들은 매월 5천억원 이상 상환이 이뤄지고 있고, 통상 10월 이후 겨울철이 되면 이사가 감소하며 주담대 수요가 줄어들고, 올해는 집단대출도 관리 목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언급. 금융 당국 또한 대출 절벽에 따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	여전히 마이너스 통장은 부담 요인 -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는 지속 전망: 여전히 은행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신용대출 증가 우려는 잔존. 즉, 현재 시점에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린 다기보다는 관리 기조를 강화할 여지가 보다 큰 것으로 판단. 집단 대출 등은 새로운 성장원으로 부각 가능: 한편 집단 대출이 관리 목표에서 제외된 만큼, 은행들은 집단 대출을 새로운 성장원으로 삼을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는 은행이 가격 협상력 우위: 결론적으로 집단 대출은 일부 경쟁이 유발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의 금리 협상력이 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이는 시중 금리 상승과 더불어 NIM에 긍정적 요인.
	(9/22) 은행 대출 연체율 7월 상승 -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7월 말 0.63%로 7bpm-m 상승하였고, 6bpy-y 상승. 기업대출이 0.78%로 10bpm-m, 상승한 가운데, 대기업이 14bpm-m 상승한 0.36%를, SME대출 연체율은 0.91%로 9bpm-m 상승.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2bpm-m 상승. - 금감원은 시장금리 상승 기조 및 대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 감안, 연체율 상승세 지속 및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이에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선제적 건전성 관리 지속 유도 예정 이라고 언급.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부담 요인. 다만, 통상적으로 7월은 반기 말 매상각 이후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폭이 제한적이고, 절대적인 수준 또한 1%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음에 주목 필요. 금리 상승은 부담 요인이거나 관건은 내수 경기 회복: 금리 상승은 부담 요인이지만 일차적 관건은 내수 경기 회복. 상반기 중 높은 명목 GDP 성장률은 일부 수출기업 주도로 이뤄진 것. 결국 이에 따른 낙수효과가 어느 시점에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이에 따라 지표들 또한 개선세로 돌아 설 수 있음에 보다 주목 필요.
	(9/23) 금융 당국, 시장금리 상승에 가계대출 대응 강화 -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금융 당국은 가계 부채 실무 점검 회의를 지난주부터 재개. 주요 현안은 가계대출 금리 문제로 특히 21~22년 저금리 기조하에서 5년 고정형 주담대를 받았던 차주들의 이자비용 문제가 우려 사항. 당시 3%대 금리 주담대가 현재 Re-pricing이 이뤄질 경우, 5~6% 수준으로 전환,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 - 이에 금융 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고정 금리 대출 확대 등의 방안을 고민. - 신용대출 금리도 빠르게 상승.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5.01%로 5%를 넘어선 것은 1년 반 만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Re-pricing 및 은행 가격 협상력 강화 확인: 5년 전 저금리로 발행된 대출의 Re-pricing 주기 도래와 은행의 신용대출에 대한 가격 협상력 제고에 따른 NIM 개선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 금리 상승은 부담 -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제한적일 수 있음에 초점 필요: 금리 상승은 차주에 부담 요인으로 부각 가능. 다만, 과거 사이클처럼 기준금리가 지속해서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현시점에서 내년 말까지의 상승 폭은 75bp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 필요. 즉 상승 폭과 속도가 제한될 경우, 차주의 부실화는 우려 대비 완화된 형태로 나타날 여지가 크다고 판단. 더 나아가 내수 경기 회복 속도 또한 고려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증권	(9/21) 33조 '빚투'에 칼 뿔다... 증권사 신용융자 한도 축소 검토 -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33조원 안팎으로 확대되면서 당국과 업계의 관리 강화 움직임이 구체화. - 금융투자협회는 9월 22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대상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 100%에서 90% 이내로 10월 1일부터 축소하기로 결정. - 특정 종목의 신용융자 비중이 증권사별 신용융자 총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개인별 한도 축소·보증금률 인상 등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 - 신용융자 최저 보증금률은 현행 대비 5%p 상향한 50%로 연내 적용 예정.	신용융자 규제 강화, 이자수지 성장 속도 제약 국면 진입: 상반기 신용공여 이자수익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 국면에서 한도(자기자본 90%)·보증금률(50%) 규제는 이자수지 성장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판단. 종목별 15% 관리 기준은 반도체 대형주 등 특정 종목 쏠림에 따른 반대매매 연쇄 리스크를 낮춰 변동성 확대 국면의 담보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향후 비중 기준 10% 하향 검토 등 추가 강화 여부와 증권사별 한도 소진율 확인 필요.
	(9/20) KRX애프터마켓 개장 일주일...거래대금 변화 추이 살펴보니 - 9월 14일 개장한 KRX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의 첫 주(14~18일)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1,476억원으로 정규장 대비 4% 수준. - 전체 거래대금 대비 비중은 개장일 6.57%에서 18일 2.90%로 낮아졌고, 개장 사흘째인 16일에는 거래대금이 8,865억원까지 감소. -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애프터마켓의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4,472억원으로 KRX는 NXT의 80% 수준. NXT 거래대금은 KRX 개장 전 2~3조원대에서 1조원대로 축소되며 애프터마켓 거래가 양분.	애프터마켓 개장, 거래대금 파이 확대보다 NXT와의 분산 효과 우세: 개장 첫 주 거래대금이 정규장 대비 4% 수준에 그치고 NXT 애프터마켓 거래대금이 KRX 개장 이후 1조원대로 축소된 점은, 시간 연장이 신규 거래대금 창출보다 기존 대체거래소 거래의 분산에 가까운 것으로 시사.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 측면에서는 거래대금 순증 효과가 제한적인 가운데 복수 거래소 대응(최선집행·전산·마케팅) 비용 부담이 병행될 것으로 판단. 개장 초기 일평균 1조원대 유지 여부와 정규장 대비 비중(2.90%까지 하락) 추이에 대한 추적 필요.
보험	(9/22) 생보사 '7년 환급형 종신보험' 못 판다 - 금융감독원은 9월 21일 감독행정을 통해 생명보험사에 7년 환급형 종신보험(700 종신보험) 판매 제한 방침을 전달했고, 생보사들은 같은 날 오후부터 판매를 중단. - 해약환급금을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로만 설정하도록 해, 특정 시점에 환급률이 인위적으로 높아지거나 일정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 설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 - 납입 기간 중 해약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상품은 해지율 가정을 기존보다 30%p 이상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 - 12개 생보사의 7년 환급형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2024년 3,100억원에서 2025년 9,5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	환급률 경쟁 제동, 생보 신계약 CSM 성장 전략 재조정 불가피: 높은 환급률을 앞세운 종신보험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단기간 종신에 이어 700 종신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되며 생보사의 신계약 CSM 확보 수단이 제약. 지난해 수입보험료가 9,500억원으로 급증한 상품군인 만큼 신계약 성장률 둔화와 대체 상품 전환에 따른 채널·수수료 재편 가능성에 주목. 해지율 가정 상향으로 보험부채 적립이 강화될 경우 이익 인식 속도가 낮아질 수 있어 회사별 판매 비중과 대체 전략에 따른 차별화 점검 필요.
	(9/22) 보험사 초장기채 수요 둔화...'국고채 만기 다변화 필요' - 자본시장연구원은 보험사가 자산 듀레이션을 상당 폭 확대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지급 여력 비율이 개선되면서 초장기채 추가 매입 수요가 둔화되는 점을 지적. - 국고채 30년물 발행 비중은 지난해 31.5%까지 상승했으나 올해 8%p 낮춰 현재 24% 수준. - 만기 1년 이하 국고채가 발행되지 않아 MMF 등 단기 자금 운용 기관의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단기 국고채 도입을 제안. - 미국은 2·3·5년물 비중이 2022년 55.5%에서 2026년 1~8월 61.9%로 상승하는 등 주요국이 만기 구조를 조정 중.	보험사 초장기채 매수 여력 소진, 장기 금리 수급 변수로 부상: 보험사는 국고채 초장기채의 핵심 수요처였던 만큼 듀레이션 확대와 지급여력비율 개선으로 추가 매입 유인이 약화되면 장기 금리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보험사 자산운용 전략 변화에 주목. 금리 상승은 부채 듀레이션 대비 자산 듀레이션 갭 축소와 K-ICS 개선에는 우호적이나 매도·평가손익 관리 측면에서는 운용 부담 요인으로 병존. 정부의 30년물 비중 조정과 단기 국고채 도입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보험사의 신규 장기채 매입 여력과 자본 관리 전략에 미치는 영향 점검 필요.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9-28 (월)		미국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대만 증시 휴장 중국 8월 공업이익
2026-09-29 (화)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 지수(ESI) 26년 17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미국 7월 S&P 코어로직/CS 주택가격 지수 미국 7월 주택가격지수 미국 8월 구인 및 이직(JOLTS) 보고서 미국 9월 소비자신뢰 지수 영국 8월 협의통화 및 준비잔고 일본 7월 경기동향 지수(수정치)
2026-09-30 (수)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8월 산업활동 동향 8월 관광통계	미국 2분기 GDP 확정치 미국 8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미국 9월 ADP취업자 변동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 건수 미국 9월 시카고 PMI 미국 주간 원유재고 유로존 ECB 비통화정책회의 독일 9월 실업률 독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 독일 8월 소매판매 영국 2분기 경상수지 영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 영국 9월 주택가격지수 일본 8월 산업생산(예비치) 일본 8월 소매판매(예비치) 일본 8월 건설수주 일본 8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 중국 9월 제조업·비제조업 PMI
2026-10-01 (목)	9월 수출입 동향 8월 온라인쇼핑 동향	미국 9월 ISM 제조업 지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9월 제조업 PMI 확정치 미국 8월 건설지출 유로존 ECB 총회 협의회 유로존 8월 실업률 유로존 9월 제조업 PMI 확정치 독일 9월 제조업 PMI 확정치 영국 9월 제조업 PMI 확정치 홍콩 증시 휴장 중국 증시 휴장
2026-10-02 (금)	9월 소비자물가 동향	미국 9월 고용동향보고서 미국 8월 공장주문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 지수(CPI) 예비치 중국 증시 휴장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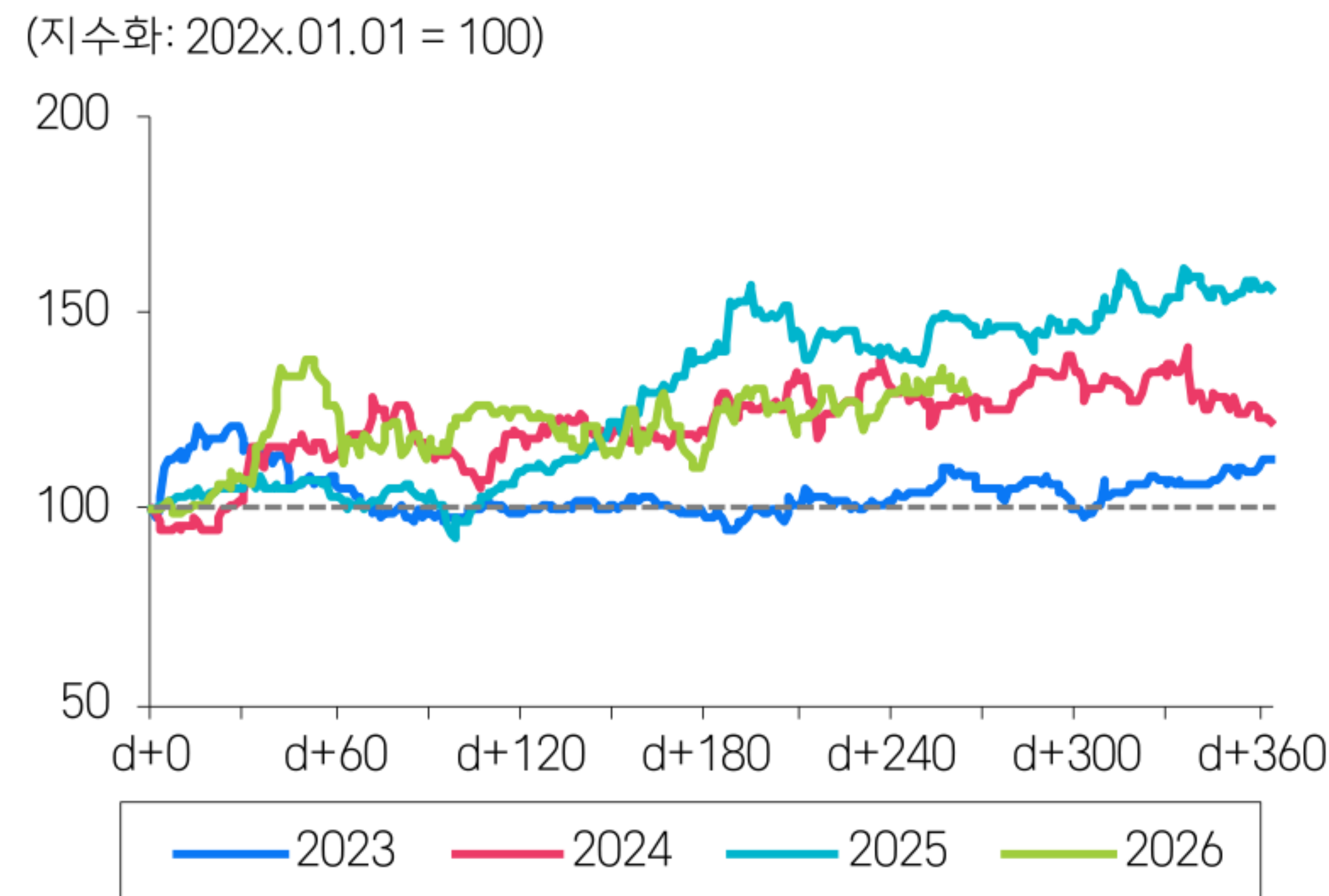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조원)	주가 (원)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5,648.8	7,080.9						2.7%	5.7%	103.1%	68.0%
	KRX은행	216.1	1,690.7						(0.9%)	5.5%	37.3%	29.7%
	KRX증권	59.6	1,806.4						2.6%	(0.8%)	22.1%	18.1%
	KRX보험	119.0	4,293.0						(0.7%)	0.6%	60.4%	60.4%
	결제 지수*	1,291	n/a						(1.4%)	(6.5%)	0.2%	(1.6%)
은행	KB금융	61.4	173,200	55.4	1.0	12.1	8.9	19.9	(1.0%)	6.2%	50.1%	38.9%
	신한지주	51.3	109,300	52.9	0.9	10.9	8.8	22.0	(0.7%)	5.8%	56.4%	42.1%
	하나금융지주	36.1	133,100	50.0	0.9	10.9	8.0	15.1	0.0%	3.4%	48.7%	41.4%
	기업은행	16.3	20,400	36.0	0.5	8.7	6.2	3.7	1.7%	1.0%	3.5%	(2.6%)
	BNK금융지주	4.9	15,970	44.7	0.5	7.7	6.0	2.2	2.4%	11.2%	7.7%	0.6%
	JB금융지주	5.6	30,150	43.2	0.5	9.5	5.3	22.4	(2.3%)	10.6%	27.2%	17.5%
	iM금융지주	2.8	17,810	50.9	1.0	13.1	7.6	5.2	(2.3%)	4.1%	27.0%	14.5%
	카카오뱅크	9.5	19,920	50.0	1.3	8.9	15.4	28.6	(2.6%)	(7.8%)	(17.7%)	(7.8%)
증권	미래에셋증권	17.5	32,250	25.8	0.9	23.6	5.2	130.6	1.9%	(7.2%)	51.4%	38.1%
	NH투자증권	9.6	26,000	41.6	0.9	16.4	5.7	57.2	1.8%	0.2%	29.0%	23.2%
	한국금융지주	10.4	186,400	24.6	0.8	22.9	3.9	44.6	2.2%	1.7%	21.0%	15.3%
	키움증권	7.0	266,000	28.9	0.9	23.9	4.2	54.1	1.3%	(0.6%)	(3.6%)	(8.1%)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21.0	125,600	51.7	1.3	23.1	6.2	9.7	(1.0%)	8.8%	7.3%	11.1%
	삼성화재	28.9	648,000	42.0	0.7	8.1	9.4	30.8	0.0%	1.9%	41.3%	30.4%
	삼성생명	58.9	294,500	35.0	0.5	4.7	11.1	88.5	3.9%	3.2%	86.9%	86.9%
	DB손해보험	12.1	184,600	30.3	0.8	13.9	5.8	11.4	(1.2%)	2.3%	30.0%	40.8%
	한화생명	4.9	5,640	10.8	0.3	6.8	4.7	6.9	(3.8%)	7.6%	73.5%	73.3%
	현대해상	4.1	47,550	13.5	0.5	16.6	3.3	8.0	(2.6%)	(6.0%)	60.1%	54.4%
결제	카카오페이	5.5	40,650	n/a	n/a	6.5	49.6	145.0	1.0%	(9.3%)	(26.4%)	(17.2%)
	NHN KCP	0.5	13,280	n/a	n/a	17.3	9.5	23.9	2.2%	(13.6%)	(8.4%)	(10.9%)
	KG이니시스	0.3	9,910	n/a	n/a	6.7	5.2	9.1	(0.4%)	(0.9%)	(4.4%)	(3.0%)
	KG파이낸셜	0.1	4,060	n/a	n/a	6.4	6.6	0.9	(0.5%)	0.5%	(20.9%)	(13.6%)
	나이스정보통신	0.3	7,420	n/a	n/a	14.6	4.8	56.9	(7.7%)	1.0%	(67.1%)	(70.7%)

참고: 9/23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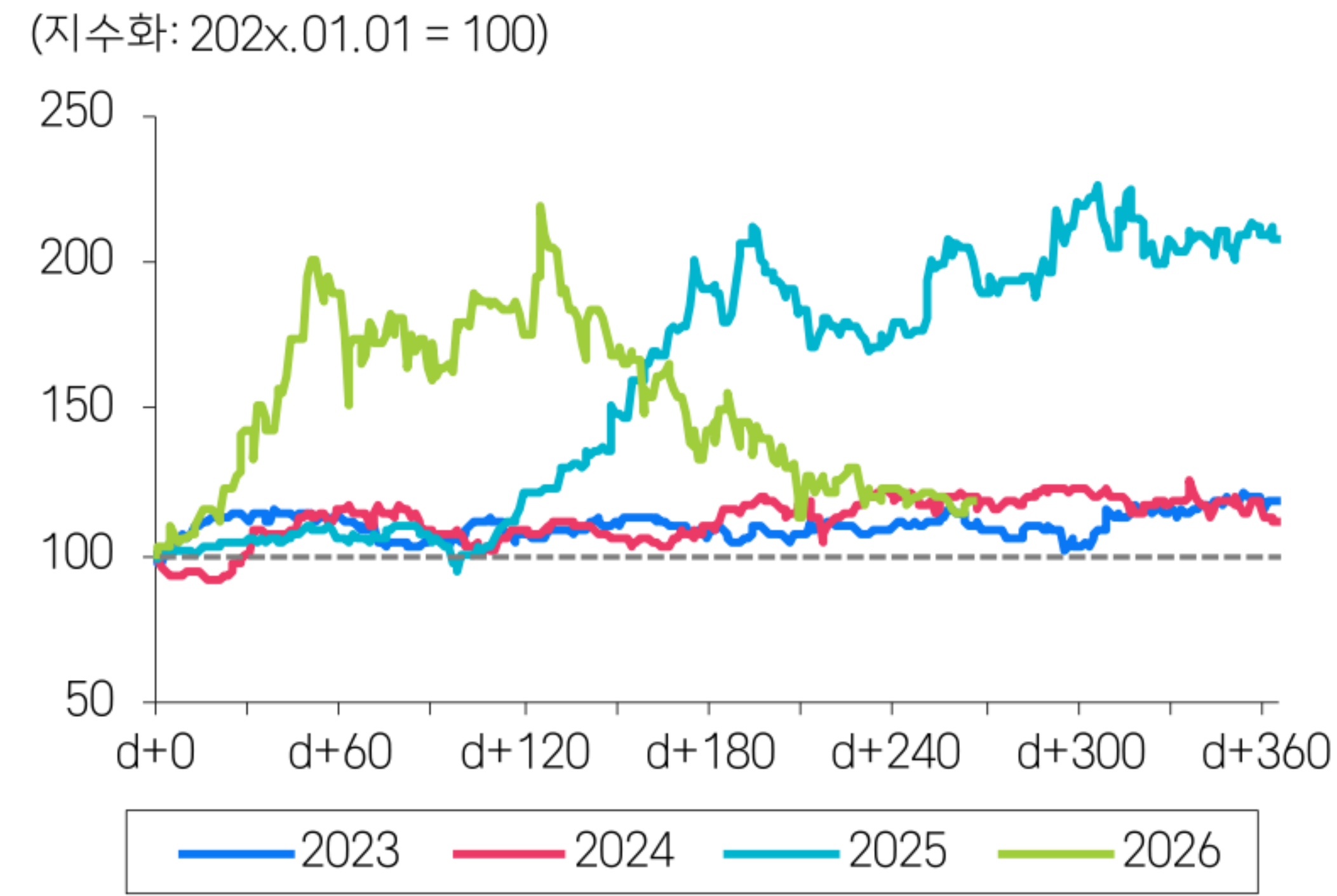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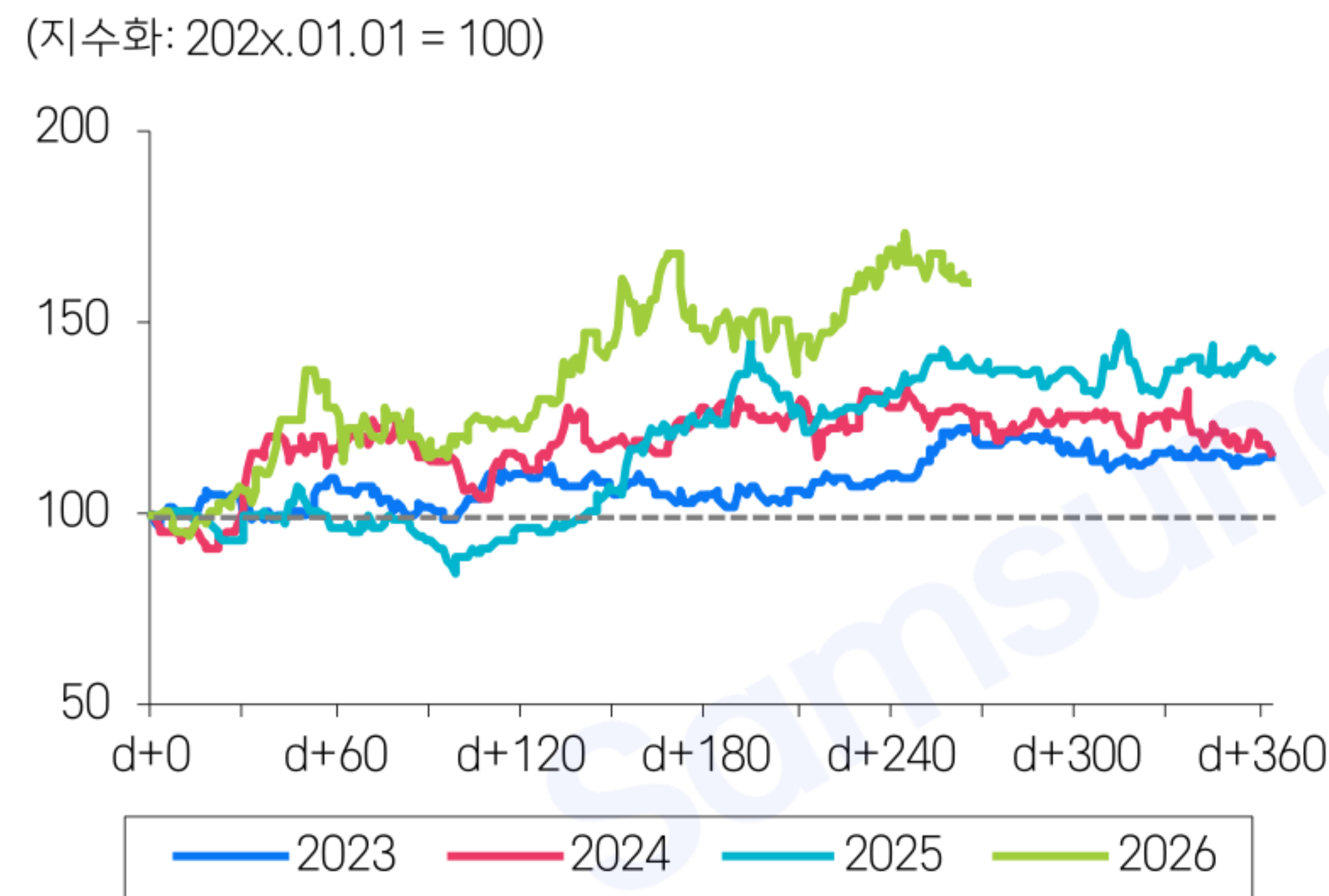
자료: Quantiver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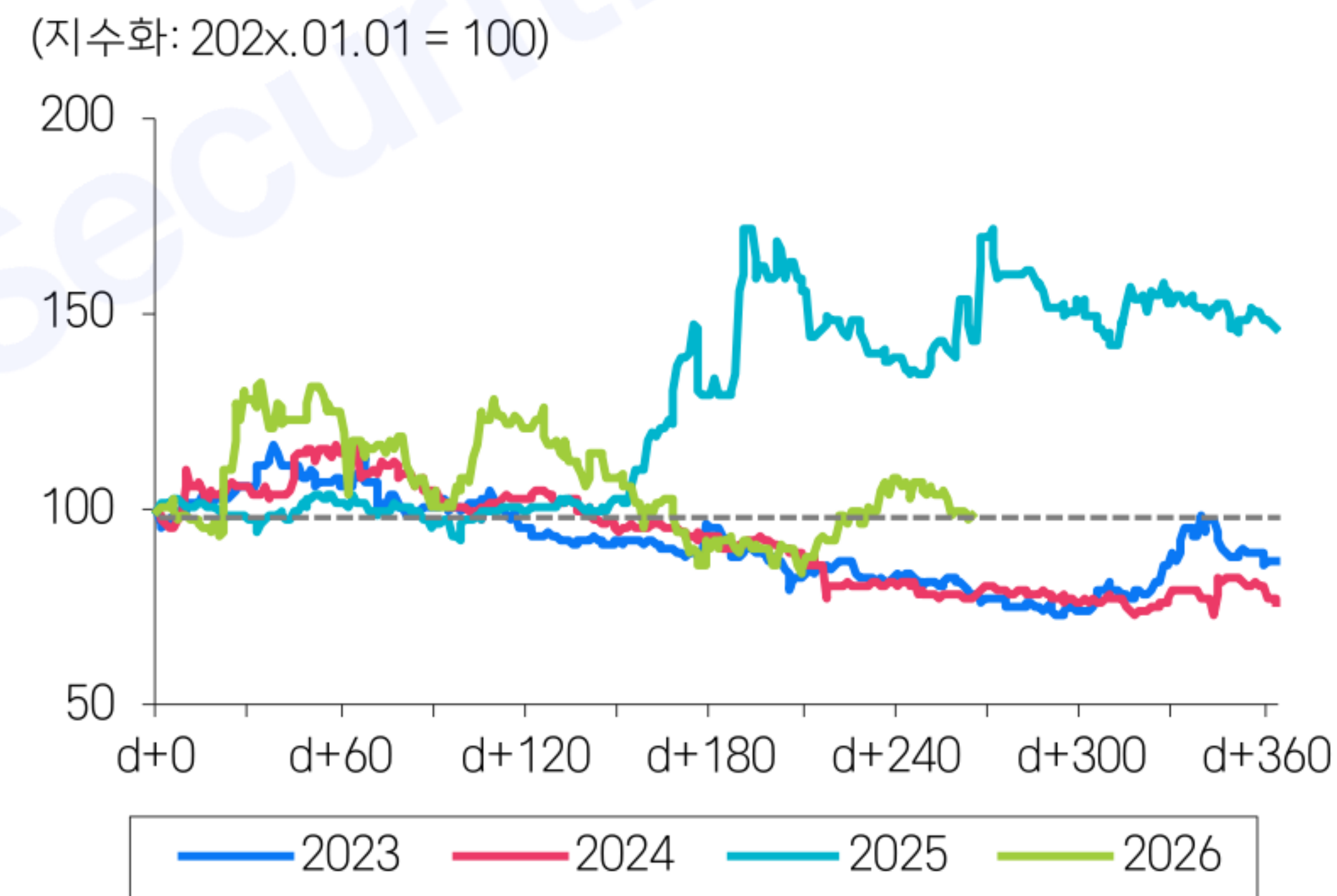
자료: Quantiver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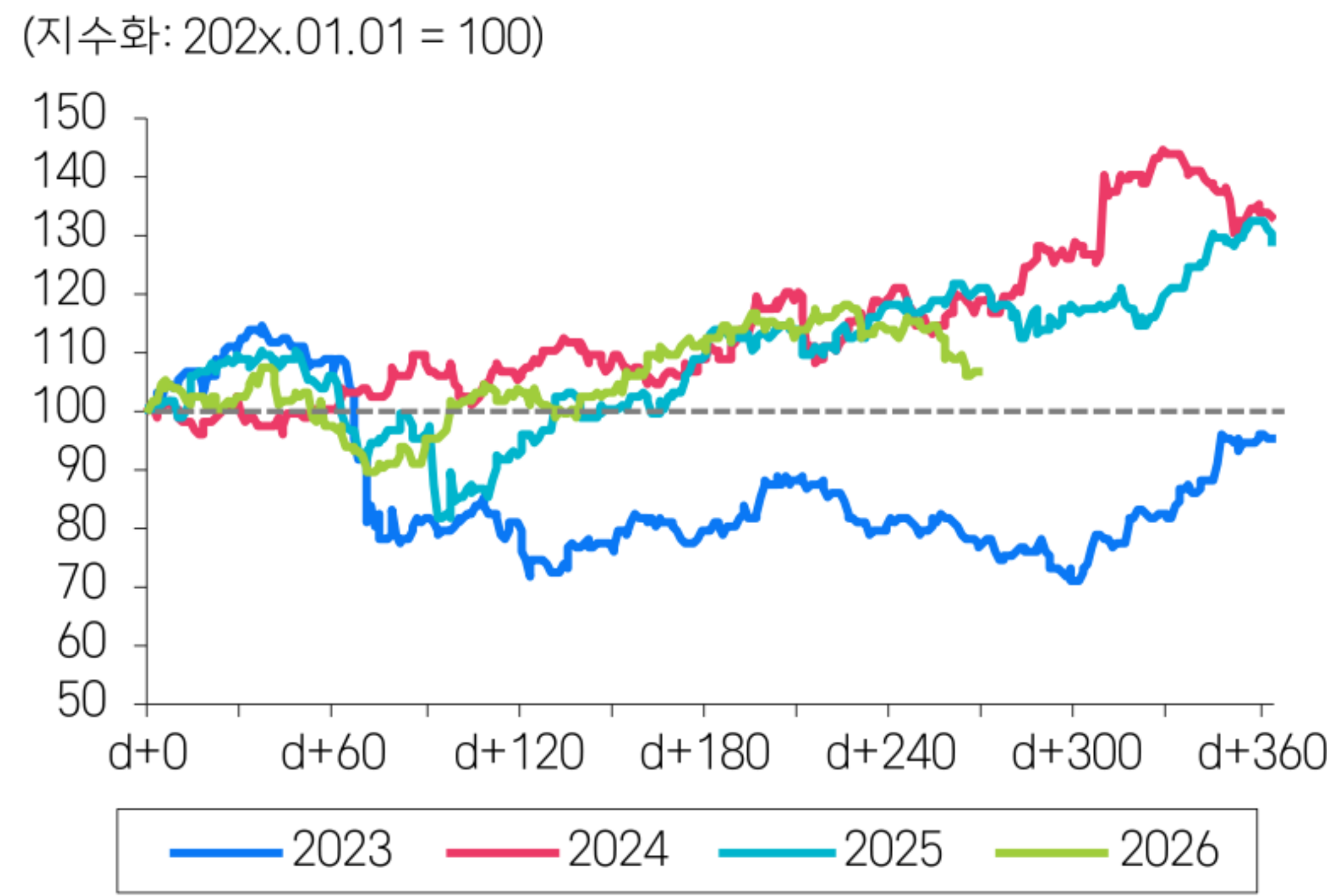
자료: Quantiver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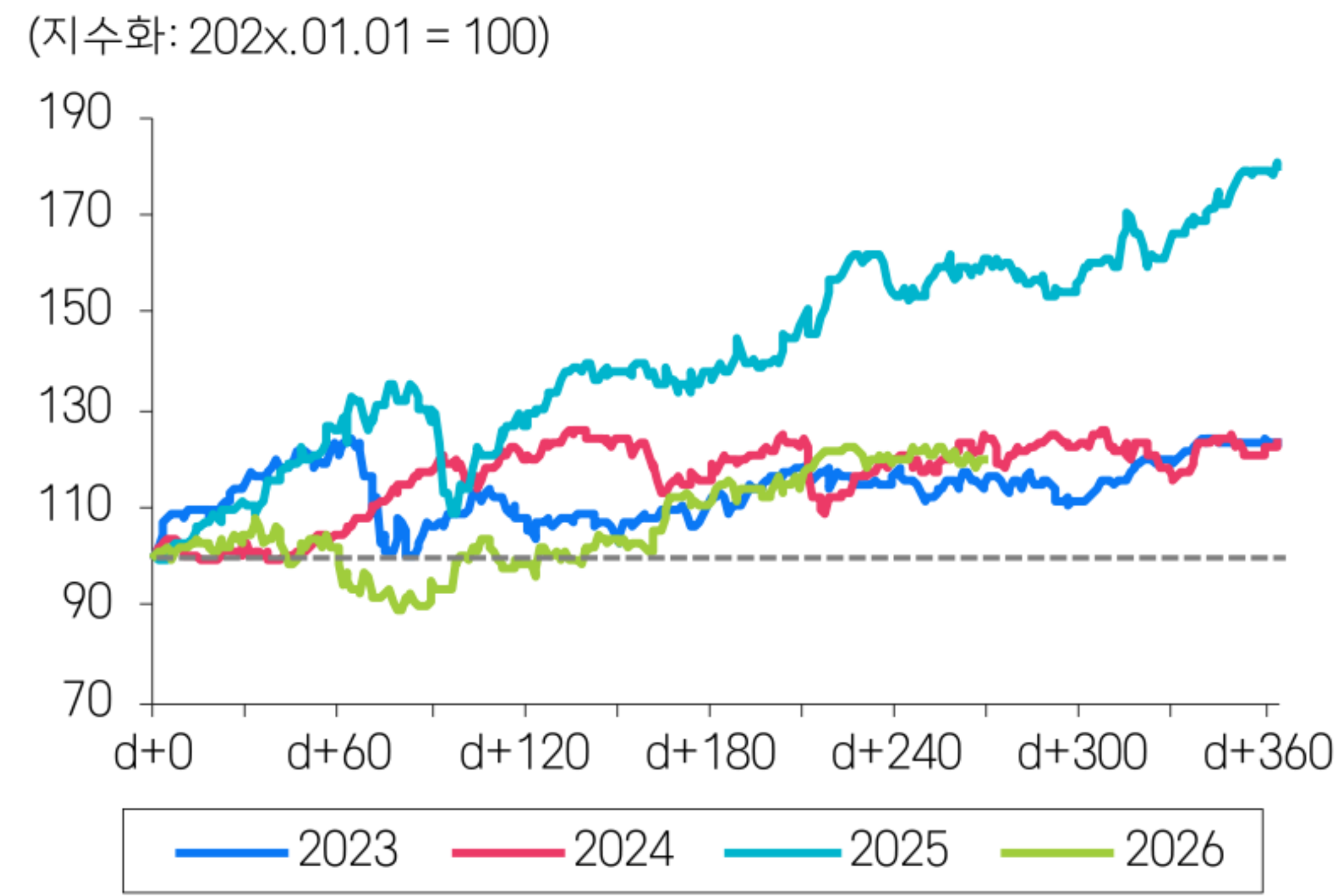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ver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911.9	70.0	2.5	18.9	13.8	24.3	(1.9)	(3.2)	8.5	6.5
		Bank of America	396.5	98.1	1.4	12.1	12.2	21.7	(1.8)	(7.3)	8.6	3.1
		Citigroup	225.2	115.8	1.1	10.0	12.1	58.7	1.9	1.2	29.8	15.1
		Wells Fargo	250.9	87.3	1.5	13.3	11.3	17.3	(3.7)	(2.4)	(2.4)	(11.0)
		PNC Financial	90.0	71.7	1.5	13.1	11.9	14.0	(3.2)	(7.3)	11.0	8.1
	유럽	Banco Santander	208.2	62.9	1.7	13.8	11.4	14.5	0.4	(1.1)	42.1	24.8
		Unicredit	144.0	78.3	1.8	16.6	11.1	6.9	3.5	(0.9)	28.3	18.4
		BBVA	160.0	97.0	2.4	19.3	11.9	20.2	2.2	0.6	53.1	25.7
		ING Group	103.9	87.3	1.8	14.0	12.8	17.2	0.3	4.4	44.1	33.4
		Lloyds	83.1	82.7	1.5	14.1	10.2	45.9	(0.1)	(0.5)	31.1	10.7
		Barclays	82.2	72.2	0.9	10.8	9.1	19.3	0.4	(5.8)	21.2	(2.5)
	일본	Mitsubishi UFJ FG	279.7	50.2	1.8	12.4	14.7	18.6	2.6	1.5	55.1	49.0
		Sumitomo Mitsui FG	166.9	61.1	1.5	11.3	14.4	16.5	1.3	0.2	63.1	37.3
		Mizuho FG	133.7	56.5	1.7	12.9	14.4	19.0	1.5	1.6	69.6	51.3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409.6	30*	0.6	9.1	7.3	3.4	0.2	0.9	31.8	19.5
		China Construction Bank	326.9	30.6*	0.7	9.7	7.1	3.5	(0.6)	4.3	29.2	24.0
		Agricultural Bank of China	352.2	31.2*	0.8	10.0	7.8	6.4	3.4	4.7	25.3	12.7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82.2	N/A	1.4	6.5	19.2	(15.2)	(0.7)	0.3	1.2	0.5
		AIG	38.8	89.2	0.9	10.2	10.4	흑전	(1.5)	(3.2)	(4.9)	(13.3)
		Travelers Insurance	75.7	82.5	2.2	22.0	10.6	25.3	(3.1)	(1.7)	30.7	25.2
	유럽	Allianz	183.3	81.2	2.6	18.8	13.9	10.2	(4.5)	(6.5)	18.3	8.5
		AXA	104.7	59.8*	1.9	17.3	10.6	(8.3)	(1.6)	0.9	8.2	7.4
		Generalli	76.3	57.6*	2.0	14.4	13.8	14.7	(3.4)	(0.9)	30.9	22.3
	일본	Tokio Marine	98.1	48.7*	2.1	14.2	15.7	82.1	(2.5)	3.9	27.3	37.4
		Daiichi Life Insurance	43.8	49*	1.6	12.7	12.9	23.5	(0.3)	3.5	59.5	46.3
	중국	Ping An Insurance	134.6	35.3*	0.9	14.5	6.2	10.9	(0.9)	(7.4)	0.6	(19.1)
		China Life Insurance	143.2	17.4*	1.2	24.3	5.0	4.1	(2.7)	(2.9)	34.6	4.4
		PICC P&C Insurance	46.6	41.3*	1.2	14.1	8.4	7.4	(1.7)	2.9	(5.7)	0.6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83.2	97.4	2.5	19.3	13.4	36.5	(0.7)	(10.1)	16.6	6.4
		Morgan Stanley	308.3	65.7	2.8	19.1	15.1	27.0	(3.1)	(8.6)	22.6	10.6
		Charles Schwab	171.3	79.7	3.5	25.1	15.8	34.9	(5.9)	(8.3)	3.7	(0.9)
		Robinhood	107.5	47.2	10.2	19.5	55.0	5.9	(0.4)	8.8	(2.0)	5.6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08.6	84.2	6.2	35.2	17.5	14.9	(0.9)	(7.6)	(9.6)	(16.5)
결제	미국	VISA	685.9	21*	19.5	67.5	29.1	23.6	(0.2)	(3.2)	8.9	4.8
		MasterCard	497.4	17.7*	67.3	242.8	29.0	18.6	0.4	(4.1)	0.4	(0.6)
		PayPal	47.1	10.5*	2.4	23.8	10.9	(7.0)	5.0	(10.5)	(18.2)	(5.7)
	유럽	Adyen	31.6	0*	4.3	21.3	22.5	15.6	(0.4)	(19.7)	(35.3)	(36.3)
핀테크	미국	Block	45.9	0*	2.0	9.7	46.3	(21.4)	0.2	(9.9)	3.7	17.4
		Upstart	2.3	0*	2.6	17.8	34.7	52.6	(4.8)	(21.8)	(58.5)	(45.6)
		Affirm	24.1	0*	3.6	12.4	34.3	(62.2)	0.4	(7.7)	(5.9)	(3.9)
	중국	LuFax	1.1	N/A	0.0	(1.2)	(1.2)	흑전	4.2	(3.1)	(65.7)	(52.0)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9/25 종가 기준
* 현금 배당 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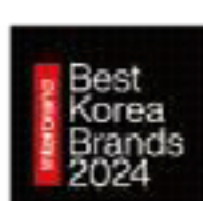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